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2년 6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2022년 3~4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41,269,640		
구 분	2022년 3월		2022년 4월	
자 동 이 체	713명	9,603,500	799명	20,452,270
지 로	42명	804,740	86명	1,160,640
CMS이 체	99명	1,201,120	95명	1,162,020
역삼동성당				6,885,350
합 계	854명	11,609,360	980명	29,660,28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1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1,0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9,8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1,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0,419,640	출판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41,269,64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2. 05 / 제63호

펴낸날 2022. 05.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지난 4월 30일은 베트남 전쟁 종전(1975년) 47주년이었습니다. 당시 수백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베트남을 탈출한 오랜 세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베트남인 "보트 피플"로 알려진 베트남 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작은 어선을 타고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게 수천 명의 다른 베트남 난민과 함께 필리핀으로 향하는 큰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난민캠프에서 며칠을 보낸 후 괌 난민캠프로 옮겼습니다. 그 후 우리는 미국 아칸소 주 포트 채피에 있는 난민 캠프로 이송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포트 채피 난민 캠프에 머무르며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올해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3개월째 접어들면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난민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난민의 흐름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붉은 티셔츠와 짙은 남색 반바지를 입고 지중해 해변에 누워 있는 죽은 두 살 소년의 사진은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난민의 운명에 대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란 쿠르디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2일에 어머니와 형과 함께 익사하여 그들이 희망했던 캐나다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전쟁과 난민의 이미지는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전쟁의 공포" 또는 "네이팜탄 소녀"라는 사진이었습니다. 네이팜탄 폭탄에 몸이 불타버린 벌거벗은 9살 소녀가(판티 킴푹) 달려와 비명을 지르는 사진입니다. 그녀는 1982년에 그리스도교인이 되었으며 믿음이 그녀의 삶에 힘과 은혜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으며 고통 앞에서도 강해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용서 덕분에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몸에 상처가 많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마음은 깨끗합니다. 네이팜탄 폭탄은 강력하지만 믿음, 용서,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두 대통령, 특히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은 성모 마리아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님의 지상 여행에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특히 우리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인 여정, 항상 동반하고 계십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원고삼 베드로 신부

공동체 소식

국가별 공동체의 성삼일 & 부활대축일 소식*

이주사목위원회 국가별 공동체에서도 기쁘게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침체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는데 오랜만에 성기도 울려 퍼지고 많은 신자들과 함께하며 힘든 시기를 지나 고생하고 있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하던 부활절 행사와 음식 나눔은 못 하지만 부활 계란과 선물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며 더불어 전쟁과 분열로 세계 곳곳에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분이 주시는 희망과 빛으로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소식*

4월 28일은 노동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UN에서 정한 "세계 노동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입니다. '노동자 추모일(Workers' Memorial Day)'이라고도 하는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ICD)'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로 불리든 이날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노동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일하다 죽는 일이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자 노동사목위원회와 이주사목위원회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인 102명(12.3%)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숫자는 줄었지만,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전쟁을 멈춰주세요. 캠페인>



<지구의 날 활동>



<한양성곽 현장학습>

베트남 공동체 소식*

지난 5월 1일 베트남 공동체에서는 세례식(6명)이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일하며 오랜 시간동안 교리 받으며 세례 받으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타국에서 받는 성사의 은총은 남다르고 뜻깊을 것입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민 인식 개선 및 후원모집 소식*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들을 환대하는 법을 알리고자 신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알록달록 협동조합에서 만든 에코백, 앞치마, 파우치 등의 다양한 패브릭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역삼동 성당(3월 26일~27일), 가재울 성당(4월 30일~5월 1일)에 방문하여 신자분들을 만나 뵈고 왔습니다. 두 분당의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3월~4월까지 신규 후원신청자로서 5월 가재울 성당 신규 후원자분들은 다음 소식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 같은주 강명화 강성문 광옥자 광희규 구경애 권혁만 금미선 기혜민 김가연 김경희 김동균 김동주 김동철 김동현 김미영 김민정 김성만 김성열 김송균 김수진 김숙현 김순희 김승겸 김승모 김양희 김옥희 김은영 김응목 김일하 김재훈 김종갑 김종재 김주현 김지애 김진희 김창민 김택균 김현숙 김혜숙 김호성 김호태 김희대 김희숙 남궁기 남봉현 남상우 남영애 남희순 류창수 류하나 모명자 문근영 문유숙 문지영 민구희 민지연 박광복 박난선 박모영 박봉자 박선희 박성규 박수현 박숙희 박시은 박영란 박영옥 박영호 박원식 박재의 박정옥 방수희 배명자 배희분 백경옥 백창현 변상문 서광우 서용광 서은지 서지형 서효리 석미숙 설윤희 설지영 성인순 손미라 손지현 신명진 신민선 신주는 신현애 심종섭 안승로 안정숙 양현숙 양희용 엄미원 여숙연 오삼숙 옥순복 유기주 유동애 유한여울 육춘호 윤명심 윤정애 이경은 이기석 이미랑 이미숙 이미정 이복희 이상화 이선영 이선혜 이선호 이영희 이임수 이재준 이정숙 이정은 이정의 이지연 이지영 이철 이추성 이필련 이형순 이향수 이혁수 이혜영 이화경 임데레사 임성택 임수인 임유순 임재진 장혜련 전유미 정금자 정명환 정유성 정윤석 정은준 정이현 정중순 정청희 조남진 조방순 조애란 조영창 주혜련 진인숙 천유진 최동혁 최민진 최성규 최원경 최유나 최유정 최윤희 최진우 최해탁 한솔 흥인식 황문환